

생태미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 전통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The Study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Space from an Ecological and Aesthetic

Author 양은지 Yang, Eun-Jee / 정희원,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실내디자인전공 석사과정
김개천 Kim, kai-chun / 정희원,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실내디자인학과 부교수

Abstract Currently, the nature and ecosystem's destruction by human beings and science is appearing as a serious problem. The possibility of ecological aesthetics is being sought as one of operations for new society in the contemporary society that the nature and ecosystem are getting attention, The present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its expression method by setting the ecological aesthetics as an alternative of the future design. The history, meaning, mental image and image of Korean traditional Space forming the balance and harmony with the Nature, etc., which are important design concepts, were deduced as the beauty of emptiness, the beauty of a gap, the beauty of harmony and the beauty of changing and the beauty of simplicity as characteristics of experiencing space. If the deduced expression is examined through a case analysis of traditional housing, the characteristics trying to unite with the Nature while seeing ecology and aesthetics as one root, which the ecological aesthetics regarding as a root. The ecological arts based on the ecological aesthetics enters inside the universal life of human beings by examining the ecological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appearing in Korean traditional Space, and the arts will move forward in a direction that its function and role link with maintenance of total ecosystem. The space application possibility and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ecological aesthetics should be continuously researched.

Keywords 생태미학, 생태학, 한국 전통 주거 공간
Ecological aesthetics, Ecology, Korean Traditonal Residence Spac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오늘날 생태학적 위기에 대해 생태학자 킨젤바하(R. K. Kinzelbach)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학적 위기의 극복과 해결책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적 세계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설파했다. 생태학적 위기는 인간이 조성한 것이므로, 이는 바로 인간의 위기이며, 문제의 근원은 과학, 기술이 아닌 인간의 잘못된 생각 속에 있다고 한다. 서양의 일부 생태학적 위기의 대안으로 서구의 전통적 사유 속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자인하고 동양적 지혜 속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시도들로 나타났다.¹⁾ 동양적 세계관에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은 새롭게 등장한 생태적 세계관의 패러다임과 함께 미래의 미학적 디자인 대안으로 생태미학이 형성되

었다. 생태미학에 근거한 환경 예술은 인간의 보편적인 삶 속에 들어오고, 예술도 스스로의 기능과 역할을 생태계 전체의 유지와 연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전통주거 공간은 자연도 구축의 한 부분으로 인공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 함께 교감을 일으키는 융화의 공간이다. 본 연구는 전통주거 공간이 일상 중심의 의식체계와 사상이 담긴 삶의 공간으로 단순하기 시각적이거나 조형적인 특성이 아닌 삶을 영위하는 장소로서의 특성으로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특성에 중요한 디자인 개념인 역사, 전통, 기억, 의미, 장소성, 이미지, 심상, 신념, 환경지각, 인지, 행태, 등을 바탕으로 생태미학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생태 미학적 관점으로 전통주거의 표현방법 및 특성에 파악하여, 전통공간의 새로운 접근 방법과 생태미학의 가능성에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0년도 국민대학교 교내연구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임.

1) 이동철·최진석·신정근, 21세기의 동양철학, 을유문화사, 2009, pp. 348~349

1.2. 연구 방법 및 범위

현대 사회에서 생태, 환경이 문제가 대두되면서 생태적 세계관과 동양사상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생태학과 전통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동양의 생태-미학적 사상에 바탕으로 한 생태미학 특성을 한국 전통 공간을 통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조선시대 중·상류 주거 공간 중 자연과 융화가 잘 드러나는 도가사상을 바탕으로 형성된 주거 공간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그 대상으로는 주거공간에 자연 정원이 특징적인 공간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논문과 문헌을 바탕으로 생태미학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동양사상을 관점으로 생태미학을 선행 연구한다. 둘째, 앞서 연구된 생태-미학적 특성과 전통주거 공간과의 연계성을 찾고, 셋째, 전통공간에서의 생태-미학적 표현방법 및 특성을 도출하여 사례 분석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생태미학의 의미와 가능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생태미학의 이론적 고찰

2.1. 생태미학의 개념과 원리

(1) 생태미학의 개념

생태학적 디자인의 대상은 수없이 많고, 접근방법 또한 다차원적이다. 이러한 생태학적 디자인의 뿌리는 생태환경의 건강에 대한 경외심뿐만 아니라, 그것의 미학적인 측면에도 있다.

생태 미학은 생태적 사상을 바탕으로 기존 개념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생태적 예술과 문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미학을 말한다²⁾ 이러한 생태미학은, 생태학과 미학을 별개로 나누어 생각하진 않고, 하나의 공통된 뿌리를 갖는 학문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생태미학은 자연의 감성적 인식가능 근거를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환경미학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환경미학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실천적인 서양을 규범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생태미학은 자연의 경험의 인식가능조건에 대한 인식론적 근거를 설정하여 '새로운 자연철학'의 일부로서의 자연인식론이다.³⁾ 이러한 개념은 '녹색미학' 또는 '참여미학'이라는 의미로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아놀드 벌리언트(Arnold Berleant)는 '참여적 환경미학' 이론을 제안하였고, 그의 미적 이론은 작품과 지각자(감상자)간의 정적인 미적 관조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미적 경험이 일어나는 '미적 장(場)'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다. 그에 의해 제기된 '참여적 미적 경험'이라는 사고는 결국 예술의 형태를 바꿨으

며, 예술 작품 속에 가능한 참여가 일어나는 장(場)인 '환경'을 미학의 주된 주제로 삼게 되는 전환의 계기를 제공한다. 그가 제안한 '참여미학'은 예술이 대상과 대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경험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자아에 대한 육체적인 참여와 스스로에 대한 해방으로서 자연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한다. 생태적 세계관의 범주에서 거론될 수 있는 생태 미학은 기존의 미학과 질적으로 다른 미래의 미학으로서, 새로운 '美'의 개념과 예술, 문화를 제시한다. 이 새로운 문화는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적 측면에서도 기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녀야 한다. 이것은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온 기존의 성장이데올로기와 기술문명에 대한 가차 없는 비판이면서 동시에 기존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을 선취해서 보여주는 예술이다.⁴⁾ 생태미학은 디자인, 예술, 문화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자연과 친화 감성적 교감이 가능해 진다. 이 같은 자연과의 관계형성은 심미적 가치 태도가 더해지면서 지속가능한 디자인 패러다임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인간, 예술, 자연이 심미적 교감을 하며 공존하고자 하는 생태미학적 태도로 보고 있다.

(2) 생태미학의 원리

건축에서 생태미학의 원리인 통일(Unity), 동적균형(Dynamic Balance),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은 미국의 생태 설계의 거장 Ian Mcharg 교수에 의해 제안된 생태 건축론(1978)에 근거하여, Dr. Koh Jusuck에 의해 구체화 되었다. 이 세 가지 디자인의 원리에 입각하여 건축을 자연과 서로 진화적 적응을 하는 매체환경으로 보았다.

<표 1> 생태미학의 원리

원리	통일	동적균형	상호 보완성
의미	자연의 보편적인 질서	자연의 창조적 질서	질서의 분리할 수 없는 본질
과학 이론	• 열역학 제1법칙 (보존의 법칙 에너지 효율 극대화)	•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증가의 법칙) • 생물계의 진화 과정	• 상대성 이론: (시간과 공간의 개별성과 상대성) • 상보성 원리: (입자와 파동의 분할할 수 없음과 상보성) • 불확정성 원리: (주체와 객체의 분할할 수 없음과 상보성)
디자인 원칙	• 자연적, 문화적 환경과의 통일, 사람과 장소와의 통일 •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성	• 질서와 무질서의 동적 균형 • 전체와 부분 최적화의 균형 기하학과 유기적인 것의 균형 • 보존과 개발의 균형	• 물질과 마음의 상보성 • 인간과 자연의 생태적 통합 • 건물과 조경의 생태적 통합 • 실내와 실외의 생태적 통합
건축의 생태학적 관점	비독립적 존재의 조화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계	주기와 변동을 기반으로 한 동적인 균형	부분과 전체가 상호 보완을 이루는 유기체적 체계

2) 김용민, 독일환경-생태문화와 새로운 녹색미학의 가능성, 1996, p.388

3) 구승희,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동국대학교 출판부, p.88

4) 권영걸, 공간디자인16강, 도서출판국제, 2001, pp.106~108

앞에서 거론한 3원칙은 설계패러다임으로 1982년 제안되었으며, 1987년 생태 미학론으로 발표되었다.

위의 <표 1>⁵⁾에서 설명한 생태미학 원리에서 구체적으로 개념화한 이세가지 원칙은 하나의 체계, 즉 생태학적 적용 원리라는 건축과 생태학을 예술과 건축이 함께 하는 과학으로서 통합 시킨다.

2.2. 동양의 생태 미학사상과 특성

(1) 동양의 생태미학 사상

동양적 관점에서 자연은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 보면서 자연과의 합일, 내지는 자연으로의 회귀를 예술이나 도(道)의 최고 가치로 삼아왔다. '자연'이란 단순히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현상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때로는 인격화된 존재로, 때로는 신적 존재로 숭상되기도 하고, 도(道)나 진리의 구현체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풍조는 유, 불, 도가를 막론하고 동아시아 삼국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기도 하다.⁶⁾

동아시아 사상에서 '자연'은 '스스로(혹은 저절로) 그러하다'라는 술어적의미로 쓰인다. '자연'의 용례는 이 말이 최초로 등장하는 [노자]에서부터 시작된다. [노자] 25장에 나오는 도법자연(徒法自然)⁷⁾이 이와 관련하여 보통 많이 거론되는 구절이다. 오늘날의 의미로 쓰이는 '자연(nature)' = '천지(天地)'이다. 이런 점에서 이 용어는 공간적 차원을 가리키는 '우(宇)'와 시간적인 차원을 가리키는 '주(宙)'가 결합된 '우주(宇宙)'라는 용어와 통용될 수 있다. 이처럼 동양에서 '자연'은 단순한 의미가 아닌 동양 사상의 핵심 용어로서 동양의 자연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⁸⁾

동양의 자연관을 도가와 불가적자연관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서양의 일군의 환경주의자, 생태주의자들이 최근의 생태계 위기 문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동양사상 그중에서도 도가철학과 선불교를 지목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동양의 자연관을 도가와 불가의 자연관으로 살펴보고자 다음의 표로 정리해 보았다.¹⁰⁾

<표 2> 도가와 불가의 자연관

도가의 자연관	- 도가 사상의 핵심 용어 '自然': (天地 만물을 추상적으로 종합한 말로, 만물의 原形이자 총체적인 모습(總相)) - 자연은 천지와 만물을 동시에 포섭. - 도의 본성은 무조(無造)이고 무위(無爲) - 「노자」 5장 "天地任自然 無造無爲 萬物自相治理" - 자연은 곧 무위 - 무위자연성(無爲自然性)
불가의 자연관	- 다르마(dhr→dharma): 우주만물을 떠받쳐 유지, 우주의 '이법'이나 '법칙', 만물의 '본성', '진상' 또는 '진리' 등을 의미. - 불교에서 '본성으로서의 자연'과 전체로서의 '자연'은 각각 성과 법계로 표현 - 무상성(anityatā)과 무아성(anātmatva) 과 공성(sūnyatā)을 특징. (상호의존성, 연생성이 자연의 본성[법성]인 것.) - 불가에서 자연은 공(空)한 관계- 중심이 없기에 지배도 종속도 없는 관계

동양에서 미학(美學)은 사물에 대한 정치(精緻)한 파악은 그것에 대한 기호적 해석을 넘어선, 마음을 통한 깨달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믿었다. 미(美)를 파악하거나 체험하면서도 미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았고 언어를 사용하며 공리를 세우거나 정의를 내리려 애쓰지도 않았으며, 미의 본질을 핵심으로 하는 미학을 애써 정립하려 하지도 않았다.¹¹⁾ 동양의 미에 대한 관해서 도가의 미와 유가의 미로 나누어 살펴보자면 다음의 표와 같다.¹²⁾

<표 3> 유가와 도가의 관점

도가의 미	- 노장 자연을 숭상하는 도법자연(道法自然)의 심미관. -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변화관. - 현실 사물의 미와 추는 모두 객관적인 표준이 없다고 보고 또 서로 전화(轉化)할 수 있다고 봄. - 「노자」 2장: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사물의 미 - 장자는 우주 본체가 되는 도는 최고의 절대적 미이며, 현상계의 미와 추는 상대적일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차별이 없다고 여김.
유가의 미	- 미와 선의 결합 강조: (심미와 예술은 사회·정치·풍속과 중요한 내재적 연계성이 있다고 여김.) - 공자의 「논어」 「이인」: 인과 미를 결합하여 이해, 선과 형식으로서의 미를 구분. - 「맹자」 「진심(盡心)」: "인간의 선천적인 내면의 선을 충실하게 한 것이 미이다(充實之謂美)" - 「미와 선은 같다'는 관계를 발전 시켜 미를 선보다 높은 경지로 봄

(2) 생태미학의 특성

천연(天然)이라는 것은 하늘의 경계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과거 동양의 유학에서 신기를 이룬 최고의 형식은 하늘의 경지 즉, 자연의 경지를 이룬 인문세계였다. 마치 자연이 그러하듯 자율적 실체와 상상속의 가상이 혼재되어있는 상태였다. 천연의 미(天然地味)는 실체와 허공이 동존하고 상생하며 나와 자연이 하나가 되어 경계 없이 넘나드는 인식의 확장이다. 이것은 물아일체로 시공 속에 독존하듯 독존하지 않으며 영원의 느낌을 자아내는 상태로 모든 것을 담는 동시에 각자의 크기로 드러나며 다른 것들과 섞이고 합쳐지는 것이다.¹³⁾ 이러한 동양 사상의 예술은 어떠한 특별한 형태를 갖고자 한 것이 아니

5) 윤갑근·김대현, 현대건축에서 나타난 생태학적 표현에 관한 연구, 조선대 조형미술연구지, Vol.5, No.1, 2005, p.14
6) 이은경, 風流-동아시아 美學의 근원, 보고서, 1999, pp.76~77
7) 도법자연(徒法自然)을 노자는 인간과 땅과 하늘 그리고 세 영역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우주적 원리로서의 도의 위계성에 대해 "사람은 땅을 받받고, 땅은 하늘을 받받고, 하늘은 도를 받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받받는다."고 말함.
8) 이동철·최진석·신정근, 21세기의 동양철학, 을유문화사, 2009, pp.207~212
9) 구승희, 동양사상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인가?, 한국도가철학회 발표논문, 2000. 6
10) 김종욱, 불교생태철학, 동국대학교출판부, 2006, pp.139~150

11) 장파, 동양, 서양 그리고 미학, 유중하 외 譯, 푸른숲, 2000, pp.85~88
12) 이동철·최진석·신정근, op.cit., pp.105~108
13) 김계천, 조선의 미의식(천연의 미), 국민대학교 조형논총 제28집, 2009, pp.153~154

다. 그렇다고 무기교가 그저 소박하고 검소함을 추구한 것이 아니다. 무기교는 기교를 넘어서 의도하지 않은, 존재하지 않는 듯한 형식으로 무한함을 갖는 것이다.

장자는 미적 세계를 크게 자연과 인위 둘로 나누고, 자연 중에서도 현상보다는 본성의 세계를 더욱 아름다운 세계로서 긍정하였다.¹⁴⁾ 동양에서의 이러한 인위는 인위의 흔적이나 자취가 남지 않은 자연성 속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인위성과 자연성이 통합되는 천연의 상태를 실현하고자 했다.

동양에서 생태미학의 특성은 자연성과 인위성이 공존한다. 자연적이지만도 않고, 인위적이지 않는 스스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인위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자연과 인위를 결합하여 더욱더 자연스럽게 하고자 하였다. 동양에서 생태미학은 자연과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 예술, 건축 공간 서로가 함께 섬기며, 공존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2.3. 생태미학과 전통건축의 연계성과 특성

(1) 생태미학과 전통건축의 연계성

고대로부터 한국 전통건축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자연의 융화(融和)을 들 수 있다. 전통건축에서 집이란 물질과 공간, 시간 그리고 건축과 조경 등의 개념이 합일된 개념으로 쓰였다. 집은 곧 우주(宇宙)이고 천지(天地)이며, 자연이었다. 그리하여 집을 짓는다는 것은 창덕궁 주합루(宙合樓)의 당호에서 보듯 건물만을 짓는 것이 아니라 천리적(天理的) 생명성의 조영이었고 우주와 합(合)하는 일이었다.

전통건축은 비어있음으로 충만하고, 항상 여여(如如)한, 인간과 자연의 원리와 같은 이(理)와 기(氣)의 충만한 상태를 조영하려 하였다. 건축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기보다는, 자연의 경지를 이룬 인문 세계(人文世界)를 보태어 자연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그것은 건축이 자연이고 자연이 건축으로 치환되는 경지로 근대 어떤 예술도 이룩하지 못한 예술적 성취였다.¹⁵⁾

우리의 전통건축은 산세와 관계를 맺고, 자연 지세에 순응함에 따라 배치의 불규칙적인 질서와, 대칭적 비대칭의 특징을 나타내며,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한국의 정원은 전반적으로 외향적이라 할 수 있으며, 전통 공간에서의 회향은 건축물에 상호 관입(貫入)되고 그것이 함께 자연과 동화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전통건축에서 공간이 늘 경내를 관통하여 흐르게 하고 전체를 유연히 조망하여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¹⁶⁾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으로 자연을 받아드림은 내부를 외부화 하고, 외부를 내부화 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전통건축은 건축에 사용된 재료도 자연재료 그대로를 사용하였으며, 주위에 산재한 자연요소들을 공간 안으로 끌어들이었다. 사용된 재료는 자연 그대로의 형태와 나뭇결이 살아나도록 하고 옹이나 흙 까지도 자연 상태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소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문과 창호에 적용된 한지는 빛, 바람, 그리고 자연음(音)을 여과하여 유입함으로써 자연과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훌륭한 매질(媒質)요소이다.¹⁷⁾

(2) 전통주거의 생태미학의 개념화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유기체적 특성 5가지와 생태미학의 원리 3가지를 기반으로 전통주거의 특성과 디자인 적용 개념화를 통하여 생태미학적 특성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 전통주거의 생태미학의 개념화 과정

생태학적 특성	전체성	다양성	진화성	항상성	순환성
디자인 개념화	자연과의 공존	환경에 다양하게 대응	유기체적 진화	가변적인 공간 프로그램	자연재료 사용
생태미학 원리	통일	동적균형		상호 보완성	

특성	비율	사이	융화	변화	소박미
----	----	----	----	----	-----

생태미학의 원리에서 통일의 개념은 자연과의 조화, 공존을 의미한다. 자연과의 공존하는 방법으로 동양의 사상에서는 불교의 공(空) 사상과 도가의 비움 사상이 전통주거 공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비워서 없애는 것이 아닌, 비움으로 자연과 인간, 건축물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서로 공존하고자 한 것이다.

건축디자인에서 동적균형은 질서와 무질서 간의 동적 평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건축을 생물체가 변화하는 것과 같이 진화하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건축의 형태적 균형은 창조성, 안정성, 자유성을 반영하며 단순대칭을 지양하고 2중구조의 의미를 전달 것이다. 동양에서는 이러한 동적균형을 관계의 미와 자연과의 융화를 통해 볼 수 있다. 관계의 미는 한국의 조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이(間)'을 의미하는 것이다. 건축의 미는 건축물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닌, 자연과 건축물, 건축물과 건축물, 건축물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성 설정에 있다. 이러한 특징은 자연과 융화하고자 함이기도 하다. 건축물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돋보이고자 하지 않고, 자연과 지형지세에 순응하며 인위마저도 자연의 일부로 보이도록 하였다.

14) 김충렬, 김충렬교수의 노장철학강의, 예원서원, 1995, pp.304~305

15) 김개천, 명목의 건축, 안그래픽스, 2004, pp.11~12

16) 권영걸, 한·중·일 공간조형, 도서출판국재, 2006, pp.226~230

17) 권영걸, 공간디자인16강, 도서출판국재, 2001, pp.123~130

통일과 동적균형의 포괄적 개념인 상호보완성은 건축적으로는 내부와 외부 공간 그리고 건물과 주변 환경사이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전통공간에서 변화와 소박성은 생태계의 순환성과 항상성의 개념과 연관성이 있다. 전통공간의 특성의 하나인 가변성은 시간적, 공간적 현상적 변화를 유발하고 순환적 특성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간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자연의 재료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자연의 재료가 변화하는 미를 표현한다. 자연재료 사용은 현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너지의 흐름과도 관계를 갖고 있다.

3. 전통공간의 생태미학적 표현 및 특성

3.1. 전통공간의 생태미학적 표현방법

자연에 대한 친화적 정서와 외경(畏敬)은 자연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자연의 혜택과 영향력 안에서 자연의 순리에 적응하는 자연관이 확립된다. 이러한 자연관은 자연을 현상학적으로 보면 지형, 지세, 지리, 기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자연요소를 유, 무형적 요소로 구분하여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¹⁸⁾

<표 5> 자연의 유, 무형적 요소의 특징

구분	유형적 요소	무형적 요소
요소	지형, 녹지, 물 등 직접적인 자연의 요소	공기, 기후, 소리, 빛, 바람, 기억, 생활양식과 같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요소.
관여 형식	조형적으로 관여	공간적으로 관여
도입방식	직접적인 도입	간접적인 도입
표현적 특징	규모, 형태, 위치, 배치형식 등 자연에 순응하는 형식 조형적 측면에서 유형적으로 자연에 순응	시선조작, 맥락확장, 감성, 감각적 형식으로 표현 공간적 측면에서 무형적으로 자연에 순응

<표 6> 전통공간의 자연도입 방법 및 특성

	자연 도입 방법	특성
직접적인 도입 (유형적, 무형적요소)	지형에 순응	자연 질서에 순응
	자연과 유기적 공존, 자연과의 접촉 최대화 건축을 자연요소와 밀착 : 내부공간의 개방으로 외부경관 자연의 도입,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차경, 창호의 열림으로 인한 외부와의 접촉	자연과의 융합
	내부에서 시선처리에 의한 자연경관 차경 가공하지 않은 자연재료 사용	시선의 조작 자재미(自在美)
간접적인 도입 (무형적 요소)	- 빛과 자연의 요소가 창호지를 통하여 걸러져서 유입 : 문과 창호에 적용된 한지는 빛, 바람, 자연의 소리를 여과하여 유입하여 자연과의 흐름을 용이하게 함. - 반 투광성의 창호지는 부드럽게 확산되는 빛으로 여러 형태와 겹, 창살로 빛의 유입량 조절, 낮에는 창살의 짜임새로 울동적 그림자를 실내에 투영시키고 밤에는 창살의 실루엣과 나뭇가지, 잎사귀 등의 그림자로 정취 있는 간접적 자연을 내부로 도입함.	자연과의 정서적, 심리적 교감

18) 권영걸, op.cit., p.148.

위의 <표 619>은 전통공간에서 자연의 직접적, 간접적인 도입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자연요소의 도입은 자연과의 접촉을 최대화 하면서 외부공간과 유기적으로 공존한다. 이는 내부공간의 개방성으로 인한 내, 외부공간의 상호관입 속에 자연경관의 도입, 마당, 마루, 방, 등이 하나로 연결되어 공기, 빛 소리 등 자연과도 일체화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전통주거에 자연의 도입방법에 따라 자연은 미적인 표현특성뿐 아니라, 실용적 특성도 함께 갖는다. 그 특성 중 하나가 절용(節用)주의적 미의식을 들 수 있다 자연 소재를 가공하지 않는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자연미, 자재(自在)미, 소박(素朴)미가 표현된다. 이는 미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자연풍화에 더욱 잘 견디고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흙으로 된 흙벽은 내부공간의 습기를 빨아드리고 또 건조할 때는 습기를 내뿜어 공간을 쾌적한 자연 상태로 유지한다. 방풍을 위한 수단으로 방바닥보다 조금 높게 만들어 방안의 온기가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막았다. 그러면서도 머름은 밖에서 안이 직접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시각적 차단역할을 수행하여 앉은 사람에게 아늑함을 제공한다. 뒤퇴로 향한 문들은 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머름대 위에 설치되어 개구부를 좁히고 겨울에는 한풍을 막도록 하였다. 그 외형적 결과도 나아가 자연의 비대칭성에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 또한 벽체에 비대칭의 창호를 내어 맞바람이 불도록 한 것도 통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실용정신 사례이다.²⁰⁾ 전통 주거에서 자연의 이용은 자연스러운 미를 형성할 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 면에도 뛰어난 역할을 하였다. 순환적 자연에너지 활용은 인간 생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자연지속적 측면과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자연 배려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3.2. 전통공간의 생태미학적 표현특성

(1) 비움의 미

전통공간에서 비움은 서양의 빈(void)공간과는 다르게 기(氣)가 충만한 공간이다.



<그림 1> 소쇄원

<그림 2> 부용동별서

비움으로 없애고자 한 것이 아니라 비움으로 무(無)와 유(有)를 갖고자 하였다. 비움은 비움으로 채우는 공간이다. 즉 충만한 비움이 되는 것이다. 고정화된 기능으로 구성되는 공간이 아니라 비워 둠으로서 다양하

19) 한경희 · 김자경, 생태학적 관점에 의한 전통주거의 실내디자인 특성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1, p.105

20) 권영걸, op.cit., p.132 재인용

고 층만하게 구성되어 지는 공간이다. 전통 공간에서 비움의 공간은 자연과 공존하고자 하는 표현 방식이기도 하다. 자연을 인위적으로 공간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자연에 강제성을 두지도 않는다. 비움의 공간은 자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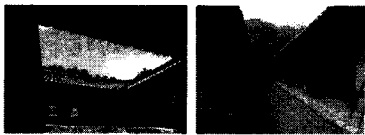
동양의 순환적 물질과 공간관은 물체와 비어있음의 대대적(對待的) 개념이 아닌, 비어있는 물질의 체계로 생명의 기운이 차있는 허(虛)를 추구하였다. 그것은 비어있음으로 비어있음을 이룬 관계적 실체로서 항상 자율적이고 편안한 상태로 인간과 자연의 원리와 같은 이(理)와 기(氣)의 충만한 상태를 조영하려 하였다. 전통주거 공간은 무(無)와 유(有), 허(虛)와 실(實)을 가지고 있다.

공간을 비움으로 내부가 고정된 내부의 형식을 갖고 있지 않다. 비워진 공간은 공간을 형성하는 형식적 요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 그 공간 안에 질과 공간을 경험하는 경험적, 정서적인 요소와 영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자 하였다.

이러한 전통공간에서 비움은 공간에 자연을 내부로 유입하고 또 그 자연의 흐름을 느껴 그 공간을 더욱더 층만하게 하는 차원까지 느끼게 한다. 전통 공간에서의 비움은 채움이 된다. 그 채움을 가두기 위한 채움이 아니라 자연으로 유입되고, 자연을 유입하기 위한 욕심하지 않는 자연에 향한 공간에 태도이다. 자연과 공간의 경계는 소멸하게 된다.

(2) 사이 미 (관계적 미)

전통공간에서 사이 '間'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이의 미'는 '관계적 미'라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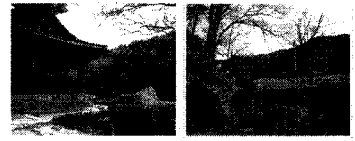
<그림 3> 윤증고택 <그림 4> 독락당

말할 수 있다. 공간과 공간, 건축물과 건축물, 공간과 자연, 건축물과 자연, 건축물과 인간의 관계를 형성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건축물과 공간으로부터 자연과 인간은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전통공간에서의 '사이'는 채와 채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크고 작은 공간으로 틈, 그 공간으로 빛, 자연을 끌어들이고 통로이다. 이러한 틈은 고정화 되어있거나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 건축-공간-인간-자연의 각각의 요소들이 레이어 되면 한 공간 안에서 다양한 경험과 감정의 변화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자연 지형에 순응하여 건축은 대칭적 비대칭의 건축적 관계 형성, 배치의 불규칙적인 질서는 자연과 관계를 갖으며 불편한 모습이 아니게 된다. 관계를 형성하며 공간은 연속성, 전이성, 다양성, 공간간의 완화, 조절, 완충, 매개의 역할을 한다. 이렇듯 '사이의 미'의 형성은 공간을 더욱더 감성적, 정서적으로 만드

는 역할을 하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또 다른 표현 방법을 나타낸다.

(3) 융화의 미

동양사상에서 융화는 자연과 인간, 공간, 예술이 합(合)을 이루어서 어느 하나 모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그림 5> 부용동별서 <그림 6> 소쇄원

전통건축은 자연과 조화롭고자, 자연지형을 허물지 않고, 지형지세에 순응하는 형식으로 건축물을 형성하였다. 위의 <그림 6>에서 보이는 소쇄원 자연 지세를 좇아 자연스러운 단차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모두가 땅의 모습에 구애됨 없이 순응하여 조화롭고자 한 것이다. 또한 정원에 자연을 인위적으로 끌어들이기 보다는 차경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멀리 있는 자연을 관망하고 끌어들이었다. 즉 자연을 파괴하면서 미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자연과 미를 별개가 아닌 하나로 본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건축과 자연이 잘 융합되어 심지어 건축이 자연의 일부인 것과 같은 조화로움을 갖는다.

전통건축에서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기후와 자연 조건이 비교적 온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서양처럼 자연보다 더 웅대한 공간을 지향하기 보다는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통건축에서 융화는 단순한 자연과의 조화만을 표현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룸으로서 자연의 변화와 함께 변화는 진화적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4) 변화의 미

전통건축에서 변화는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시간적, 공간적, 현상적 형식과 물리적인 형식 등을 가지고 있다. 변화 문과 창이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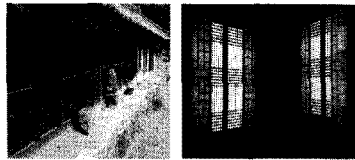
<그림 7> 소쇄원 <그림 8> 부용동별서

표현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과 문의 열리고 닫힘, 접고 펼쳐 올리는 행위를 통하여 공간은 내부의 외부화, 외부의 내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접고-펼치는 행위의 반복은 전통주거에서 '변화의 미' 또는 '접힘의 미'라고 말할 수 있다. 변화의 미는 공간에 다양성과 가변성, 연속성, 변화성과 같은 다양한 특성을 자아낸다. 창과 문이 열림과 닫힘, 접고-펼치는, 올리고 내리는 행위를 통하여 공간에 개방성과 폐쇄성을 표현할 수 있다. 공간의 열림은 자연을 내부로 끌어드리고 그 내부를 통하여 다시 자연으로 흐르는 흐름으로 경계는 소멸하게

된다. 이러한 공간의 변화는 낮과 밤에 따라 또 다른 변화를 표현하게 된다. 낮에 닫힌 문과 창에 한지를 통해 들어오는 빛과 밤에 닫힌 문과 창에 한지를 통해 들어오는 자연의 실루엣은 같은 공간에서 다른 공간을 느끼게 한다. 또한 창과 문에 있는 한지는 접고 펼치고, 열리고 닫히는 행위의 반복 속에서 겹침으로 생겨나는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문과 창은 자연을 실루엣으로 비추기도 하고, 소리와 빛, 바람을 한지, 창살과 같은 것을 통하여 여과되어 공간 안으로 흐름에 따라 공간은 더욱 더 많은 관계와 변화를 갖게 된다.

(5) 소박의 미

자연 재료의 사용은 생태미학 뿐만 아니라 생태 디자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동양에서는 이러한 자연 재료를 단순히 건축의 재료로만 본 것이 아니라 ‘미(美)’와 에너지의 순환체계까지 고려하였다.



<그림 9> 독락당 <그림 10> 윤강고택

전통주거에서 표현되는 ‘소박한 미’는 무기교의 기교로 단순하면서도 변화하는 아름다움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다. 전통에서 소박성(素朴性)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남의 눈에 띄고자 하는 욕망이 배제된 순수하고 겸허함으로 말한다. 포용성(包容性)은 자연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를 인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거나, 조형물의 형성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형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극히 자연적인 변화의미를 의미한다. 재료의 사용이나 구조에서도 크게 공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어냄으로써 소박함의 진수를 느끼게 한다. 사대부 주택은 공을 들여 지음으로써 비교적 정교하고 정갈한 느낌을 주지만 그치장이나 규모에서도 결코도를 넘치지 않음으로써 소박함의 진수를 느끼게 한다. 주거의 내부공간은 그 구성요소인 벽, 바닥, 천장을 둘러보아도 재료 자체에서 오는 자연스러움이 있을 뿐 장식적 기교가 넘치지 않는다.²¹⁾ <그림 10> 통해 보면 알 수 있듯이 무늬가 없는 한지만을 사용하였지만, 빛이라는 자연소재와 기교가 없는 재료가 만나 변화하는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9>는 나무만을 이용하여 단순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나무가 스스로 표현하는 아름다움으로 탈기교성과 지극히 자연적인 변화와 표현의미를 자연과 대립되지 않는 미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소박함은 재료 자체를 그대로 가공하지 않고 사용함에 있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갖는 자재미(自

在美)를 갖고 있으며 이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삶을 살고자 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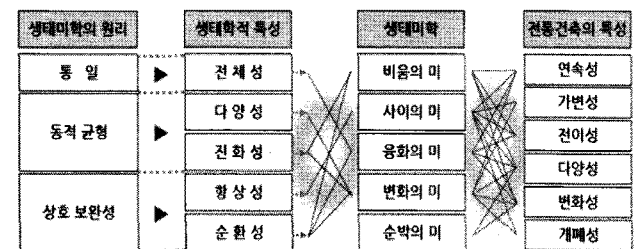
동양의 사상을 바탕으로 생태미학의 특성을 비움의 미, 사이의 미, 융화의 미, 변화의 미, 소박의 미로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7> 전통주거의 생태미학

구분	내용
비움의 미	충만한 비움, 고정화 되지 않은 자연, 자연-공간-인간의 자유로운 흐름
사이의 미	관계의 미, 시선의 조작 자연은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간과 관계를 맺음
융화의 미	자연과의 공존, 자연 지세에 순응, 자율적이 생성
변화의 미	반복으로 생기는 가변적인 아름다움, 겹침으로 생겨나는 아름다움과 자연의 흐름
소박미	자연 재료의 자연스러운 변화의 미, 무기교의 기교로 나타나는 질박하고 담담한 아름다움

위에서 정리된 생태미학을 생태계의 디자인 특성과 생태미학의 원리가 어떠한 관계성을 갖고 도출되었는지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22)와 같다. 생태미학은 공간에 표현되는 방법과 관점에 따라 더 많은 변화와 효과를 갖는다. 또한 더 많은 생태미학의 키워드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해본다.

<표 8> 생태미학 도출과정과 관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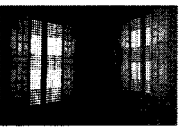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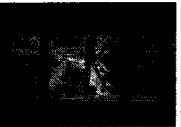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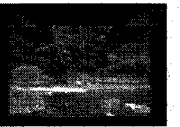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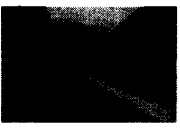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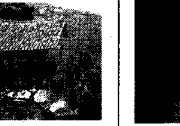



4. 사례 분석

본 장에서는 2장과 3장을 통해 도출된 생태미학의 특성의 키워드 비움의 미, 사이의 미, 융화의 미, 변화의 미, 소박미를 전통 공간에서 표현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그 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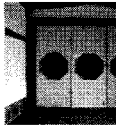


22) 본 연구에서 전통건축의 특성은 생태미학에서 거론한 전통건축, 공간에서 나타난 특성들을 정리하여 본 연구에 맞는 특성들을 정리한 것이므로 따로 특성에 관한 설명은 하지 않음.

21) 권영걸, 한·중·일 공간조형, 도서출판국제, 2006, pp.196~197

한국 전통 공간의 생태미학적 표현 특성							
구분							
비움의 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움으로 채움 자연과의 조화 자연의 자연스러운 흐름 내부와 외부의 소통 직접적, 간접적 교감 확장과 투명성 자연과의 공존 경계의 소멸과 자유로운 생성 						
		소쇄원 광풍각	부용동별서	온강 고택 안채	소쇄원	부용동별서	
		벽은 모두 움직이는 문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움직이는 형식을 통하여 벽은 모두 사라져 공간을 비우는 형식으로 보이지만, 공간은 곧 소리, 바람, 빛, 자연이 흐르며 곧 맑음으로 채워진다. 이 건축물에서 공간은, 공간과 자연, 인간,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소통으로 통한다.		본질로서의 비움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간은 비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빛과 소리와 같은 형식으로 공간은 채워지게 된다.		가변적인 벽의 구조는 공간의 본질을 비움으로 본 결과이다. 가변적인 벽은 자연과 소리, 빛, 바람을 내부로 끌어 들인다. 또한 가변화된 벽을 프레임으로 자연을 관망하며, 자연은 한 쪽의 그림으로 공간에 살아 있게 된다.	
	생태미학 원리	통일 - 자연적, 문화적 환경과의 통일, 사람과 장소와의 통일,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성 - 비독립적 존재의 조화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계					
	생태학적 특성	전체성, 다양성, 진화성, 순환성		전체성, 진화성		전체성, 다양성, 순환성, 항상성	
	표현 특성	● ○ ● ○		○ ○		● ○ ● ○	
특성	경계의 소멸, 소통, 자연과 공존		간접적 자연과 교감		자연과 교감, 공간의 확장, 시선 조작		
전통건축의 특성	연속성, 다양성, 변화, 개방성, 전이성		폐쇄성, 변화		확장성, 전이성, 개방성, 다양성, 변화		
사이의 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과 건축물, 건축물-자연-인간, 건축물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 감정의 변화 여유 있는 틈 (틈으로 자연을 즐기는 여유) 틈으로 들어오는 자연 생동하는 공간 공간의 숨김 확장성 비대칭, 레벨차이 						
		윤중고택	독락당	영암김씨종가 정여창가옥	남간정사	양진당	
		□자형의 평면을 갖은 윤중고택은 건축물과 건축물이 만들어 내는 틈으로 건축물과 자연이 관계성을 갖는다. 하늘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바라보며 자연과 소통하며 확장 한다.		지형지세에 따라서 비대칭의 균형을 맞춰 건축물을 구축하였다. 대칭적 비대칭의 조화를 이루어 공간의 전이적 효과를 갖는다.		공간과 공간사이의 연속성을 갖는다. 공간과 공간 사이의 틈으로 빛, 소리, 바람을 간접적으로 교감할 수 있다.	
	생태미학 원리	동적 균형 - 주기와 변동을 기반으로 한 동적인 균형 - 질서와 무질서의 동적 균형, 전체와 부분 최적화의 균형 기하학과 유기적인 것의 균형, 보존과 개발의 균형					
	생태학적 특성	다양성, 순환성, 진화성		다양성, 진화성		다양성, 순환성, 진화성	
	표현 특성	● ○ ● ○		○ ○		● ○ ● ○	
특성	시선조작		비대칭 작용		심리적 교감과 변화		
전통건축의 특성	연속성, 변화, 확장성		가변성, 전이성		변화, 폐쇄성		
					공간의 매개 역할, 공간의 진행성		
전통건축의 특성	연속성, 변화, 확장성		가변성, 전이성		변화, 폐쇄성		
					전이성, 다양성, 연속성		
융화의 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합) 자연과의 일체감 관망하는 아름다움 각 체 간의 융합 자연과의 어울림 자연에 순응 비대칭의 조화 자연 지세에 순응 지리적인 특성 적용 건축물 내 자연, 자연 내 건축물 건축물을 자연의 일부로 정의 						
		소쇄원	부용동별서	남간정사	일두정여창가옥		
		자연의 지세에 순응 하여, 지형을 좇아 자연스러운 단차 변화를 주며 건물을 형성하거나, 땅에 구애 없이 건물을 형성하는 지형에 순응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다. 건물을 응대함을 지향하기 보다는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 하였다.		인공적인 건물은 자연을 파괴하며 아름다움을 갖으려 하지 않고, 자연과 자연스럽게 융합을 이루고자 노력 하였다.		전통건물은 자연을 억지로 내부로 끌어들이어 합을 이루려 하지 않고, 자연을 관망하고 멀리두면서 바라보는 것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생태미학 원리	동적 균형 - 주기와 변동을 기반으로 한 동적인 균형 - 질서와 무질서의 동적 균형, 전체와 부분 최적화의 균형 기하학과 유기적인 것의 균형, 보존과 개발의 균형					
	생태학적 특성	전체성, 다양성, 항상성, 순환성		전체성, 다양성, 항상성		다양성, 항상성, 순환성	
	표현 특성	● ○ ● ○		● ○ ● ○		● ○ ● ○	
특성	자연 질서에 순응, 지형에 순응, 자연과 조화		자연과 융합		자연과 조화, 자연과 교감		
전통건축의 특성	일체감, 연속성, 다양성		다양성, 변화		전이성, 연속성, 확장성, 다양성, 변화		

표현 특성- 자연요소: 유형적 요소 ●, 무형적 요소 ○ / 자연도입방법: 직접적 도입 ●, 간접적 도입 ○

<표 10> 사례 종합 분석표

한국 전통 공간의 생태미학적 표현 특성							
구분							
변화의 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고-펼치고, 열고-닫고, 접고-올리고, 반복적인 행위로 생기는 변화적 성질 겹침으로 생겨나는 자연의 흐름 • 상호 관입 • 레이어 되는 공간 • 경계의 소멸 • 개방과 폐쇄성 • 변화와 관계 • 시간, 공간, 현상에 따른 변화 						
		부용동별서	부용동별서	일두정여창 가옥	남간정사	일두정여창 가옥	
		문은 반복적인 한가지의 형식만을 가지고 무한대로 변화한다. 개방적으로도 폐쇄적으로도 만든다. 자연은 연속적, 직접적으로 공간에 들어오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유입되어 공간 안에 머물게 되기도 한다. 가변적이면서 서로 연속되는 공간은 마치 보자기를 접거나, 구겨 넣어도 되는 실용성과 포용성, 넉넉함으로 공간을 더 풍요롭게 한다.		접고-펼치고-올리고, 공간은 문의 가변성으로 다른 공간과 연속적으로 관계를 이루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문으로 공간과 공간을 레이어 되며, 개방과 폐쇄성을 갖게 된다. 또한 공간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직접적, 간접적으로 교감을 하게 된다.	
	생태미학 원리	상호 보완성 - 부분과 전체가 상호 보완을 이루는 유기체적 체계 - 물질과 마음의 상보성, 인간과 자연의 생태적 통합, 건물과 조경의 생태적 통합, 실내와 실외의 생태적 통합					
	생태학적 특성	전체성, 항상성, 순환성, 다양성		항상성, 순환성, 다양성		항상성, 순환성, 진화성	
	표현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특성	가변성, 자연과의 조화, 공존		공간의 변화		레이어 된 공간, 교감		
전통건축의 특성	개폐성, 가변성, 변화, 다양성, 확장성		개폐성, 가변성		개폐성, 가변성, 다양성		
소박의 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의 변화의 미 • 자연의 재료가 주는 아름다움 • 선만으로 구성되는 단순한 입면 (수직, 수평의 단순) • 단순한 선의 교차 • 단순한 기교 • 변형의 절제 • 단순함과 담백 • 소박한 색과 재료 • 자연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색과 재료 						
		남간정사	일두정여창 가옥	일두정여창 가옥	부용동별서	부용동별서	
		외부 색이나, 장식을 절제하고 재료의 본성, 수를 최대한으로 살려 자연적인 변화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자연의 원 형태까지 그대로 사용함으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장식을 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나무와 창호지는 욕망이 배제된 순수하고 겸허한 미를 주고,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자연은 그 어떤 기교보다 더 아름다운 변화의미를 갖는다.	나무와 돌이 맞닿는 부분역시 돌과 나무를 반듯하게 가공하기 보다는 돌의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나무와 연결하여 질박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생태미학 원리	상호 보완성 - 부분과 전체가 상호 보완을 이루는 유기체적 체계 - 물질과 마음의 상보성, 인간과 자연의 생태적 통합, 건물과 조경의 생태적 통합, 실내와 실외의 생태적 통합					
	생태학적 특성	전체성, 순환성		진화성, 순환성		순환성, 항상성	
	표현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특성	무기교의 기교, 자재미, 절제미		포용성, 자재미		무기교의 기교		
전통건축의 특성	변화		변화		변화, 개폐성		

표현 특성- 자연요소: 유형적 요소 ●, 무형적 요소 ○ / 자연도입방법: 직접적 도입 ●, 간접적 도입 ○

5. 결론

본 연구는 생태적 위기, 환경 파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의 대안으로 생태학적 세계관, 생태미학, 동양사상이 연구되고, 요구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생태미학은 그 뿌리가 생태학적 사고와 미학에서 출발함으로 그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생태미학의 가능성을, 동양 사상을 바탕으로 생태미학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도출되어진 특성을 한국 전통 공간의 표현 방법과 특성을 통한 사례분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학적 미학은 그 적용 범위나 표현 방법이

다양하다. 지속가능한 디자인, 생태 디자인의 모든 기반은 생태계와 공존하고자하는 생태학적 미학에서 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2장에서 도출한 특성을 전통주거공간에 적용하여 살펴보면 자연은 유형적, 무형적인 요소로 직접적, 간접적으로 공간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전통 공간에서 인간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공존하고자 하였으며, 자연을 인위적으로 공간 안으로 끌어들이기 보다는 자연을 관망하는 여유를 갖고 있었다. 동양에서 자연과의 공존은 삶 자체였다.

셋째, 동양사상을 기반으로 도출한 생태미학의 개념을 전통 주거공간을 통하여 분석해본 결과 전통건축은 자연

과의 융화하고자 공간을 비웠다. 비움으로 채우고, 관계로 자연과 조화를 이뤘으며,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과 합(合)을 이뤘다. 단순한 반복을 통하여 자연과 공간을 변화 할 줄 알았으며, 자연이 주는 변화를 이용할 줄 알았다.

동양적 관점에서 생태미학은 전혀 새로운 미학이 아니다. 전통 주거에서 생태미학은 우리의 삶속에 예술적인 존재로 보편적인 형태를 갖은 표현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미학의 특성을 통해 전통주거 건축에 담겨 있는 자연 표현 방식과 자연에 순응하며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초점을 두었다. 자연과의 공존을 통하여 건축 공간의 다양한 표현 특성을 찾아보았다. 새로운 미학으로 표현되는 생태미학을 동양사상과 전통 주거공간에 대입하여 그 특성을 찾아 본 것은 앞으로 현대 사회가 갖은 과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생태미학의 연구는 지속가능한 미래 디자인 대안으로 그 중추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전통건축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조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계승 되어 질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생태미학은 공간에 표현되는 방법과 관점에 따라 더 많은 표현 특성과 변화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생태미학적 공간을 형성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의 연구와 공간 적용 가능성과 표현특성, 다차원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디자인 적용 방법론에 관한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인간과 자연, 공간이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1. 구승희,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동국대학교 출판부
2. 권영걸, 공간디자인16강, 도서출판국제, 2001
3. 권영걸, 한중일의 공간조영, 도서출판국제, 2006
4. 김개천, 명목의 건축, 안그래픽스, 2004,
5. 김종욱, 불교생태철학, 동국대학교출판부, 2006
6. 김충렬, 김충렬고수의 노장철학강의, 예원서원, 1995
7. 이동철·최진석·신정근, 21세기의 동양철학, 을유문화사, 2009
8. 이은경, 風流-동아시아 美學의 근원, 보고사, 1995
9. 장파 著, 유중하 외 譯, 동양, 서양 그리고 미학, 푸른숲
10. 구승희, 동양사상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인가?, 한국도가철학회 발표논문, 2000
11. 김개천, 조선의 미의식(천연의 미), 국민대학교조형논총 제28집, 2009
12. 김용민, 새로운 녹색미학 또는 생태미학의 가능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1호, 1997. 6
13. 윤갑근·김대현, 현대건축에서 나타난 생태학적 표현에 관한 연구, 조선대 조형미술연구지, Vol.5, No.1, 2005
14. 한경희·김자경, 생태학적 관점에 의한 전통 주거의 실내 디자인 특성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9호, 2001.12

[논문접수 : 2010. 04. 30]

[1차 심사 : 2010. 05. 19]

[2차 심사 : 2010. 05. 31]

[게재확정 : 2010. 06. 11]